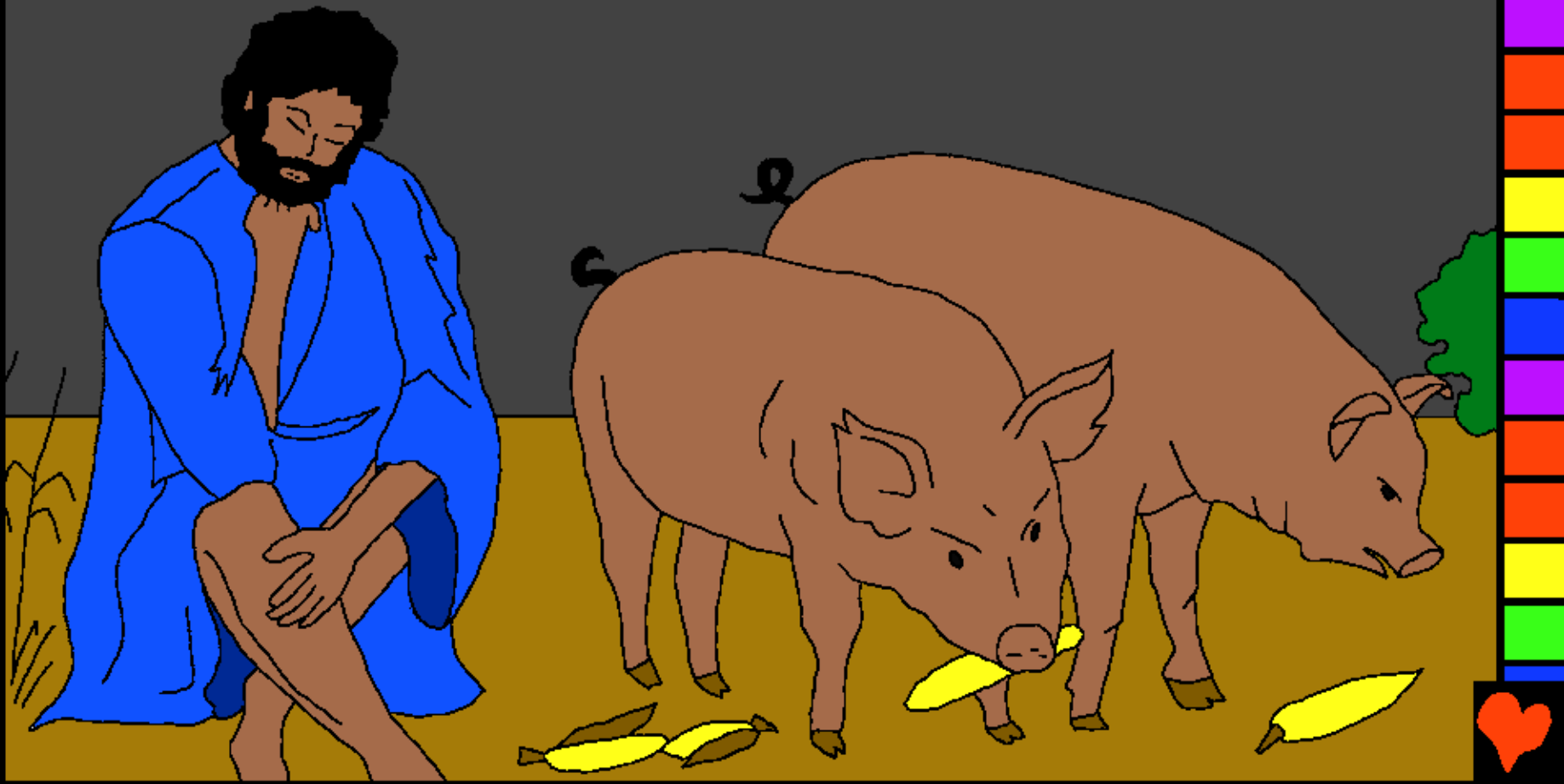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탕자 이야기



저자: Edward Hughes

삽화: Alastair Paterson; Lazarus

각색: Ruth Klassen; Sarah S.

번역: Koh Woon Choi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2020 Bible for Childre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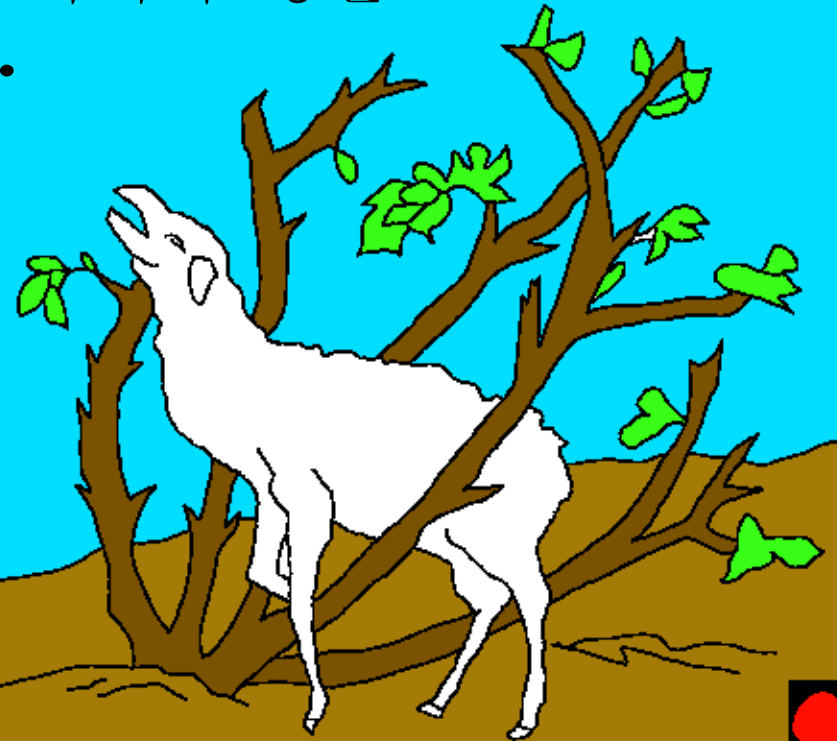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친절에  
불평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칠 때에  
기뻐하심을 보여주는  
세 비유를 말씀하셨다.



첫 번째 비유는 양  
백 마리를 가진  
양치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 곧  
바로 목자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



목자는 그가 잃어 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았다. 잃어 버린 양을 찾고 난 뒤 목자는 그의 어깨에 양을 지고 기쁜 마음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가 그의 친구들에게 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었던 양을 다시 찾았음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에  
한 명의 회개한  
죄인을 인하여 큰  
기쁨이 있다고  
설명하셨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정도로 지은 죄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일생 동안  
모았을지도  
모르는 열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였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여인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였다.



쓸고! 쓸고! 또 쓸고!  
여인은 모든 곳을 찾아  
보았다.



마침내 여인은 하나의 잃은 동전을  
찾았다. 여인은 매우 기뻐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 여인은 그녀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예수님께서서 다시  
말씀하시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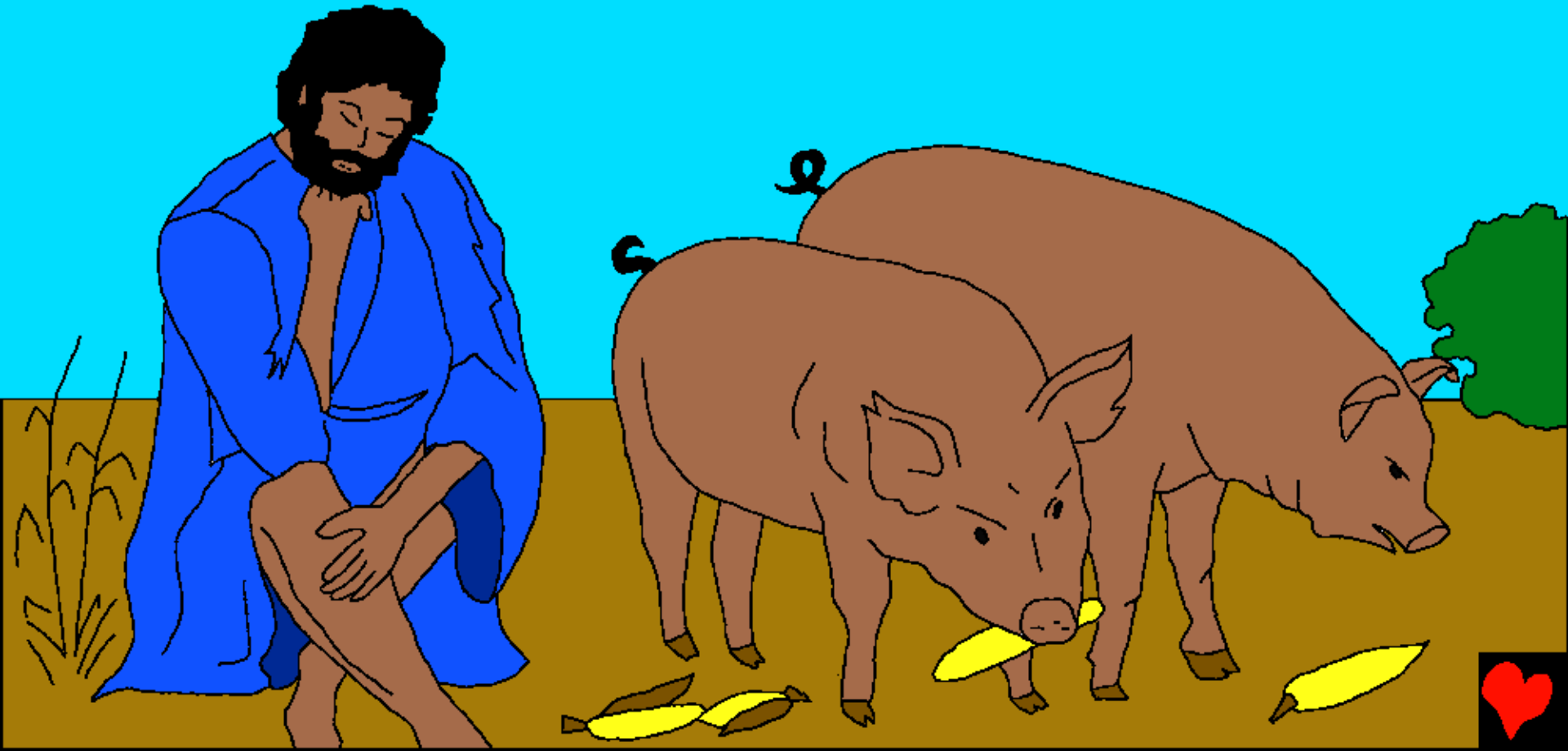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전하신 세 번째  
비유는 가장 슬픈 이야기였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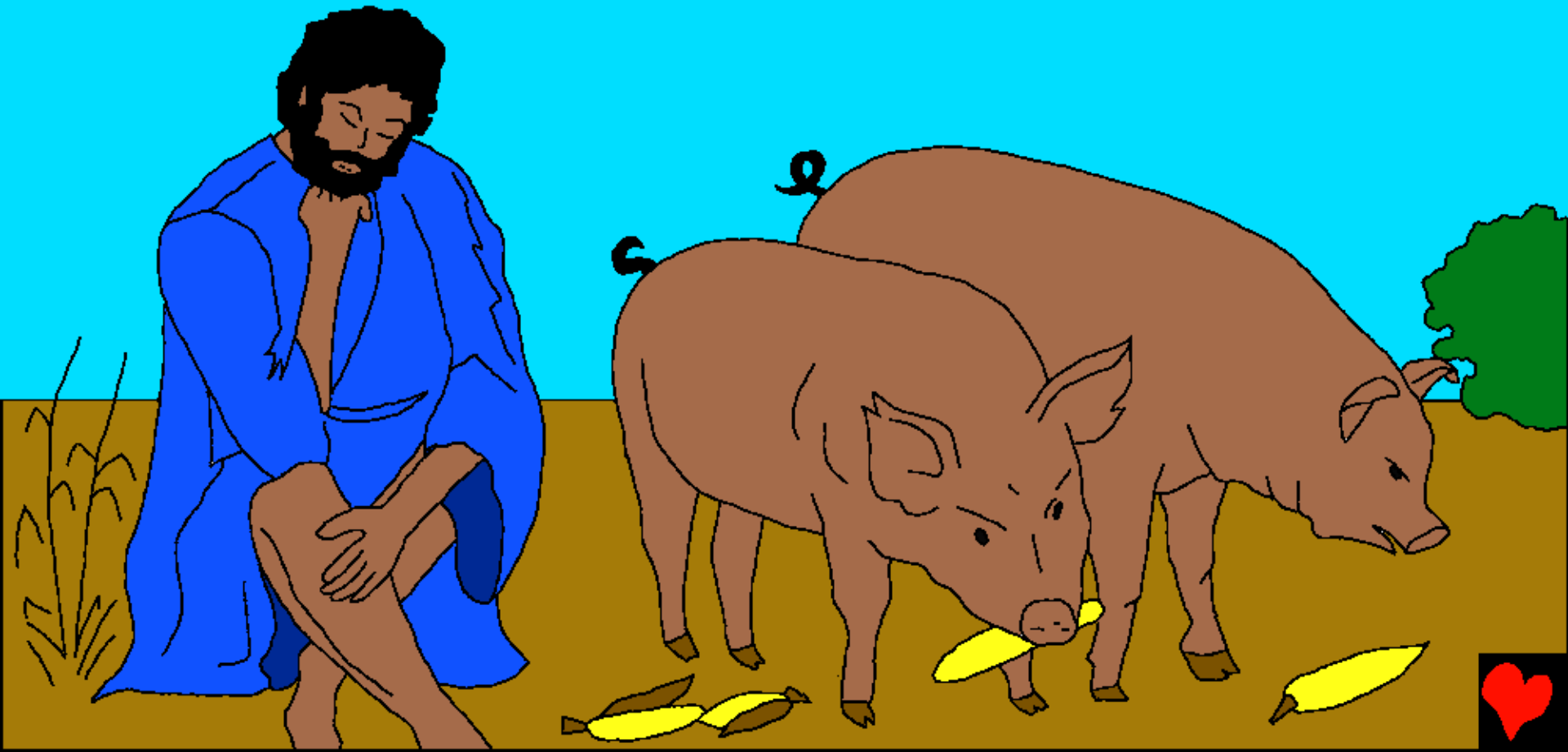
먼 땅에서 아들은 그의 돈을 어리석게 허비했다. 이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더불어, 흉년이 들었다. 아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다 다랐다.



극심한 배고픔에 아들은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돼지의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랬을 것이다!



마침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가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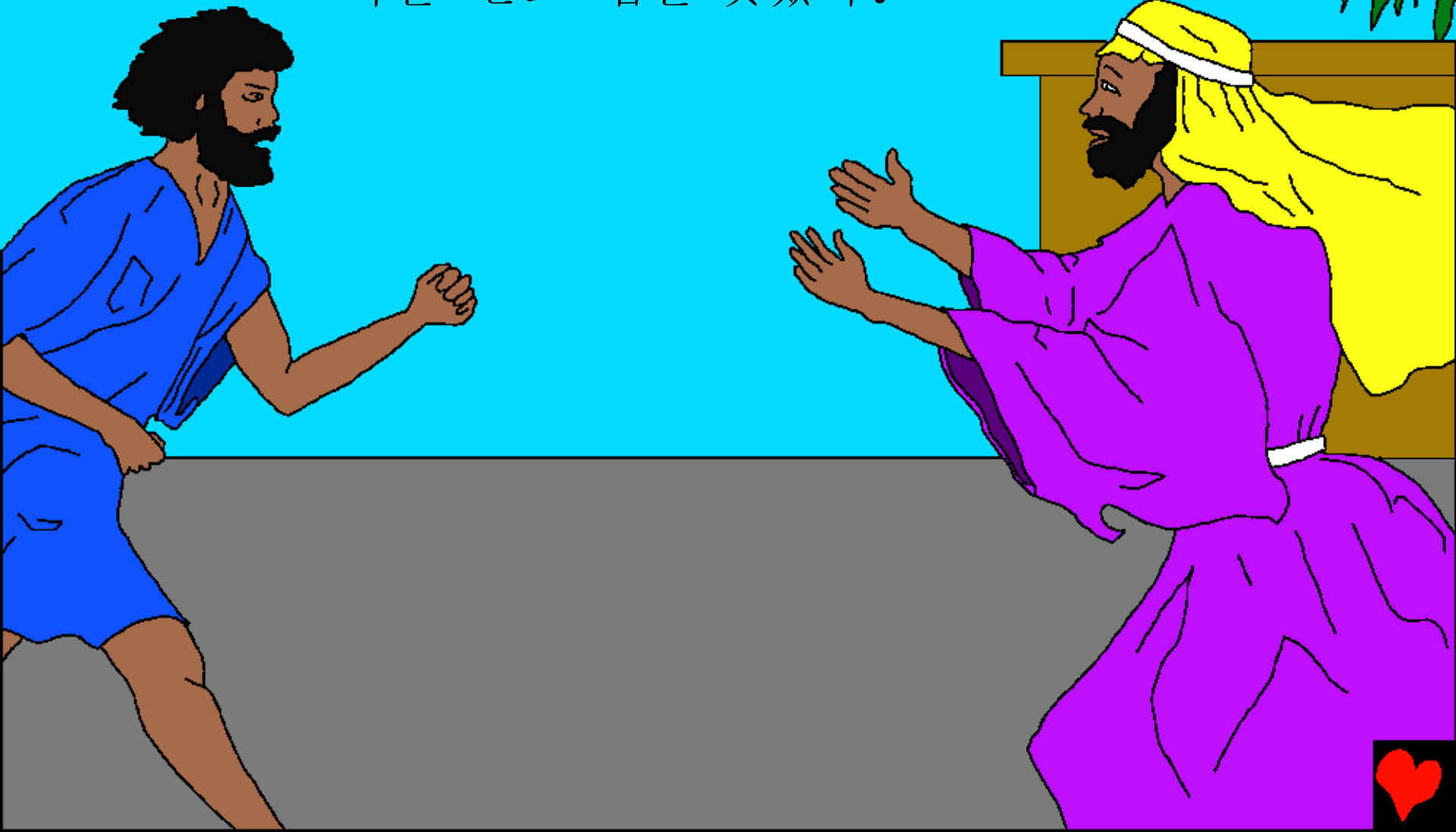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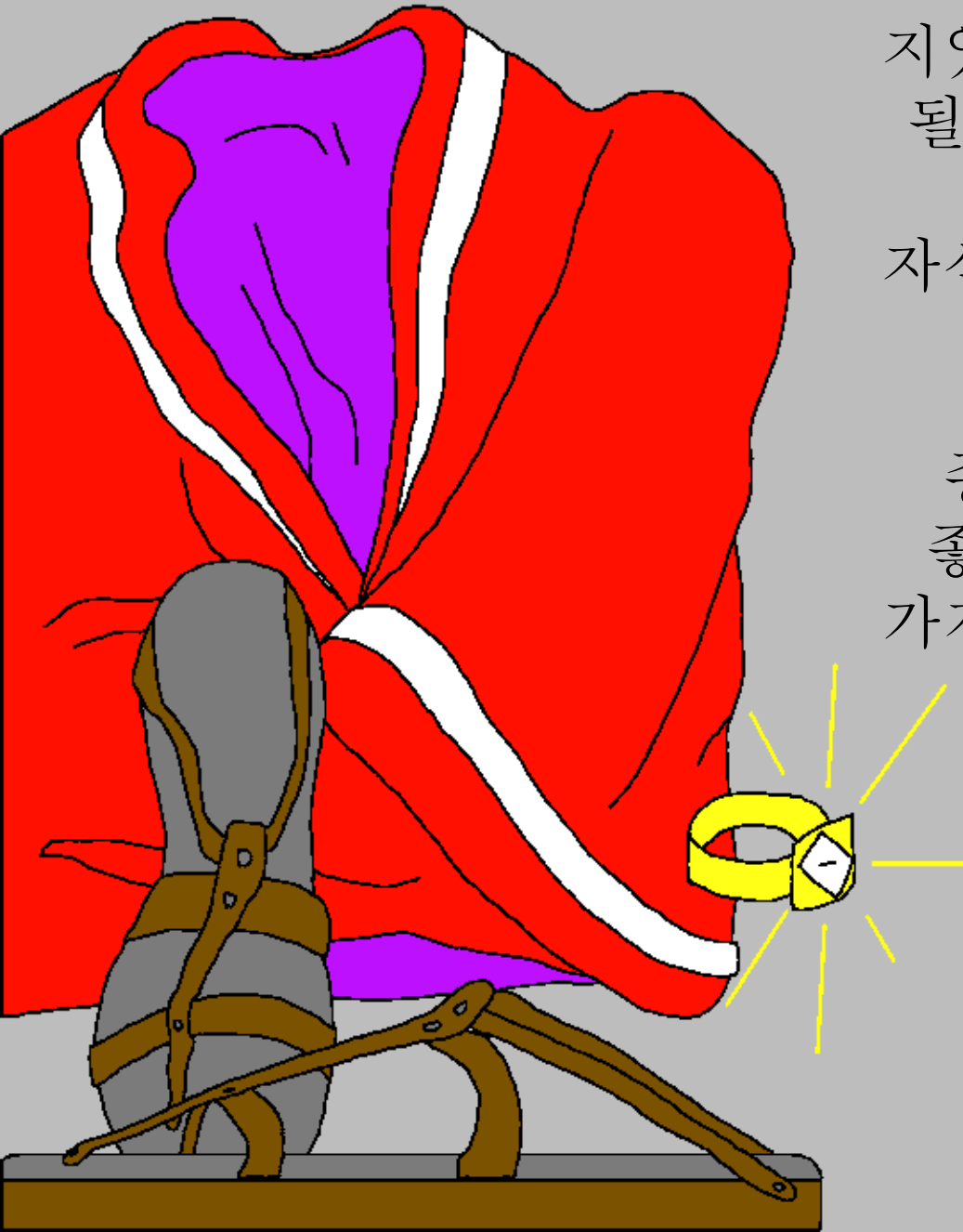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죄의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만한 가치가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품군으로  
받아주신다면 좋을  
텐데.”



아들이 여전히 집으로 오고 있는 중에, 그의 아버지가  
그가 오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나도 기쁘게 돌아 오고  
있는 아들에게 달려갔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여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군으로 삼아 달라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을 위해 제일 좋은 옷과, 신발, 가락지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잃어 버린 아들을 찾았기에 아주 큰 잔치가 열렸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오는  
사랑하시는 가를  
이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자들을  
보여주기



탕자 이야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라고 불리는 나쁜 것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